

# 근대초기 절충형 한옥성당에서 나타난 건축표현체계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 화산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경돈

(백제예술대학 건축디자인과 조교수)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00년대 초 서양건축의 한국유입과정에서 나타난 한옥식 성당의 형태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건축표현체계 및 의미를 이론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서양건축의 이입과정에서 건축된 한옥식 성당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옥성당의 형태변화에 초점을 두고 한옥식에서 서양식으로의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절충식 성당에 집중하고자 한다.

1900년대를 전, 후하여 일제의 강점기까지 국내에 유입된 많은 수의 양식 건축물 중 비교적 그 이후의 연속성을 잘 유지했던 것이 종교건축물인데, 이는 한국 초기 모더니즘건축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sup>1)</sup> 반면 당시 유입된 양식건축은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건축되었으나 건축주체나 자본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고 국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대부분 타율성이 강한 성격을 띄고있다. 이 때문에 서구의 양식건축에서는 국내에서 소화된 이후의 변형 과정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건축된 한옥식 성당건축물에서 초기의 모습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후 변형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옥성당의 절충형 성당으로의 변형과정을 강조코자 하는 것은 절충식이 양식성당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건축주체의 측면에서 독자적인 건축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양식 건축과의 접점에서 국내 전통건축과의 급격한 마찰과 변형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근대초기 건축의 독자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러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화 연구가 미진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적 언어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체계화함으로써 변화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옥성당의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성공회 성당을 포함한 한옥성당 자체의 독자적인 발전양식 중 한옥성당에서 한·양 절충식으로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옥성당의 변화 과정은 당시 건축에 관여했던 건축주체의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한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0-041-E00620).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것.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9;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김성우, "한옥교회건축형식의 성격과 전개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9호, pp.177-184; 김승배, "한국·중국·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건축의 수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양상과 사회적인 제반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변화과정의 건축적 특성은 상당히 다르다. 즉, 한옥성당 자체의 특성은 양식 성당과의 접점에서 비교적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전례를 행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이 강조된 반면, 절충식의 경우 서양식 성당양식의 완성태를 지향하면서도 독자적인 형태구조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특히 두 번째 시각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혼합과 융합의 절충식이 나타난 이후 서양식으로서의 변화과정에서 중간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전북 화산성당에서와 같이 한옥식에서 서양식의 절충형으로 변형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남한)에 남아있는 절충형 성당은 북한 것을 제외하고 전북 화산성당과 안성 구포동 성당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초기 한옥성당에서 한·양 절충형으로 변형된 화산성당을 통하여 절충형 성당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변화특성을 체계화하고자 한다.<sup>3)</sup>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축 역사상의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축 언어의 기호학적 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택하고 그 중 언어의 기호학적 성과를 받아들여 그것을 건축에 적용코자 했던 Juan Pablo Bonta의 기호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sup>4)</sup> J. Bonta는 U. Eco나 C. Jencks 및 G. Broadbent가 주창했던 건축의 언어학적 분석

의 틀을 건축물의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두고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는 건물의 기호학적 해석은 건축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다른 설명이 곤란한 역사상의 발전들과 양식들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유효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 근대초기 성당건축의 유입과정에서 한옥이 사용된 것 그리고 그것이 서양식의 영향하에서 한·양 절충식 성당으로 변화된 것, 그 이후 양식상의 발전이 중단된 것 등에 대한 유효한 해석을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한국성당건축의 형성과정 및 기존 연구의 고찰

### 2-1 한국성당건축의 형성 및 개요

개항기에 유입된 성당건축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건축형을 요구하는 급격하고 과격한 타율적인 것이었다. 다만 여타 종류의 양식건축과는 달리 천주교가 이미 18세기부터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고 교황으로부터 독립적인 교구로 인정될 만큼 자율적으로 확장되어 건축 양상은 다른 것보다 독자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가톨릭 성당건축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 국내에서 활동한 파리의 방진교회 성당 건축을 주도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영된 프랑스 고딕 지향의 양식 성당건축과 둘째, 스스로의 자생적인 방식을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의해 지어진 한옥성당이 그것이다.

#### (1) 서양식 성당건축의 특징

서양식 성당건축은 시기별로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성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항기에 유입된 양식 성당으로는 약현 성당(1891), 원효로 성당(1907), 강원도 풍

2) 김성우, Op. Cit., p.184. "한옥교회의 변천과정은 재래식 건축에서 출발하여 자생적인 자기변화의 과정을 지닌다는 것이 시사하는바가 크다. ... 한옥교회의 자기변화와 같은 주제적 근대화과정이 존재하며 이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측면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한옥교회 이해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성공회 교회의 한옥성당은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동일 건물의 양식상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 목적상 도입초기부터 거의 변함없는 형식체계를 보이는 성공회 성당의 경우 건축형태의 변화에 따른 의미변화의 특성을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회 성당에 대한 건축적 해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4) Juan Pablo Bonta, "Notes for a Theory of Meaning in Design",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R. Bunt, The Pitman Press: Bath, 4th edition, 1979, pp.275-309; Juan Pablo Bonta,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s: a study of expressive systems i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79; 徐修錫 譯, 「건축의 표현체계」, 기문당, 1994.

5)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62. "건축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기호학적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호학적 특징은 주된 건물재료나 건축방법, 형태의 관점에서 한 시대나 양식을 묘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더욱이 기호학적 분석은 다른 설명이 곤란한 역사상의 발전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며... 왜 양식들이 단명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수원 성당(1907), 전주 전동성당(1908)이 대표적이며 각각 고딕의 형식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강했다.<sup>6)</sup> 특히 평면, 입면 그리고 내부 공간을 보았을 때 서양의 바실리카식 성당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 미숙하기는 하지만 구조와 디테일 처리에서는 고딕식을 지향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반면,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양식성당은 초기의 고딕 지향식이 상실화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sup>7)</sup> 이때의 양식성당으로는 용소막 성당(1915), 공세리 성당(1921), 대전 목동 성당(1921), 옛 왜관 성당(1928), 옛 합덕 성당(1928), 장호원 성당(1930), 공주 성당(1936), 인천 답동 성당(1933), 광주 북동 성당(1937) 등이 있다. 이들 성당의 전반적인 특징은 구조와 내부공간에서 고딕의 논리적 체계가 상실되며 내부도 강당식의 단일 공간으로 변형되고 전면부에 탑만 남는, 성당의 상징성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후퇴한다. 성당을 구성하고 있던 초기의 유형들이 단순하게 조합되거나 혼합된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조와 시공의 수준도 불완전해지며 평면구성은 고정적이 되어 단순하고 소규모화해 간다. 다만, 종탑과 같은 요소는 그대로 유지되어 성당이라는 상징성만이 존재하게 되었다.<sup>8)</sup>(표 1.) 이러한 양상은 해방 이후에는 더욱 심해져 새로 지어지는 성당의 경우 단순화, 간략화, 소규모화된 형태로 변모되어 모더니즘식으로 넘어가거나 초기의 고딕 지향식 양식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서양식 성당의 전반적인 변화특성은 고딕적 형식성의 약화로 규정할 수 있다.

(2) 한옥식 성당건축의 특징

개항기 이후 서양식과 동시에 존재했던 한옥식 성당은 성공회 성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소실된 후 새로이 신축되었거나 개축과 같은 변형의 과정을 거쳐 현존하고 있다. 이들 성당의 특이한 사실은 한옥성당이 지방을 중심으로 조영되었다는 점과 성당의 전례에 맞추어 기존의 한옥을 변형시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자생적 특징이 강하다는 것인데, 한옥성당의 전형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집회라는 내부공간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면의 보 방향이 아닌 도

표 1. 서양식 성당건축의 개요

성당명/특징	평면	형태
약현성당 (1891) 3랑식, 로마네스크식		
원효로성당 (1907) 단랑식, 고딕식		
풍수원성당 (1907) 3랑식, 고딕·로마네스크식		
전동성당 (1908) 3랑식, 로마네스크식		
용소막성당 (1915) 3랑식 바실리카		
공세리성당 (1921) T자형 3랑식		
목동성당 (1921) 3랑식 바실리카		
옛왜관성당 (1928) 3랑식 바실리카		
옛합덕성당 (1928) 3랑식 바실리카		
장호원성당 (1930) 3랑식 바실리카		
공주성당 (1936) 3랑식 바실리카		
답동성당 (1933) 3랑식 바실리카		
북동성당 (1937) 단랑식 바실리카		

6)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Op. Cit., pp.39-54.

7) Ibid. p.62, p.76.

8) Ibid. pp.66-76.

리 방향(장변)의 간(間)의 부가를 통해 실내공간의 확장을 꾀했으며, 둘째, 횡축과 종축을 바꾸어 종축의 끝에 제단을 놓음으로서 공간의 깊이감을 의도하고 있다. 셋째, 중세 성당과 같이 배이를 구성하기 위해 2고주(高柱) 7량가(梁架) 구조에 의한 어간(御間)과 퇴간(退間)을 두어 바실리카식 교회의 신랑(身廊)과 측랑(側廊)을 구성하였고 넷째, 노출천장을 사용함으로써 부재들의 반복을 유도해 실내에 공간적 통일성을 부가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한옥을 변형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는데, 당시의 기술적 여건상 한옥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초기에 교회로서의 실질적인 상징이 필요 없어 가능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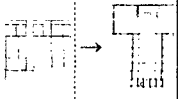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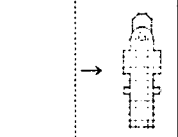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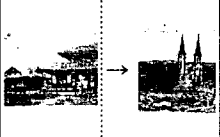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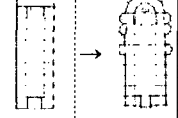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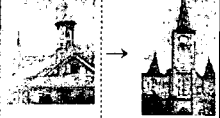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성공회 성당에서도 유사하나 가톨릭 성당에서와 같이 다양한 전개방식은 보이지 않고 초기의 한옥교회의 유형이 거의 1960년대까지 지속되어 양식상의 변형 및 발전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0)</sup>

1) 한옥성당에서 양식성당으로의 변화 개요

한옥성당에서 양식성당으로 신축된 시기는 개항기를 지나 일제시대로 넘어간다. 초기의 한옥성당은 대부분 개항기에 지어졌는데, 대표적으로 고산 되재 성당(1895), 옛 공세리 성당(1897), 황해 청계 성당(1898), 옛 대구 계산동 성당(1899), 옛 충북 장호원 성당(1903), 전북 화산 성당(1906), 김제 수류 성당(1907) 등이 있다. 이들 한옥 성당 중 그것이 양식으로 신축된 시기는 대구 계산동 성당(1899초창, 1901개축)을 제외하고는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다. 한옥성당이 양식성당으로 신축된 이유는 화재에 의해 소실된 후 신축되거나 인위적인 신축이 대부분이었다. 한옥성당이 양식성당으로 신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 계산동 성당(1899초창, 1901신축), 공세리 성당(1897초창, 1921신축), 충북 장호원 성당(1903초창, 1930신축) 등이 있으며 나머지는 소실되었다.(표 2.)

한옥에서 양식성당으로의 변화의 특성은 앞서 언급한 서양식 성당에서와 같이, 새로 지어진 시기적 특성에 따라 파악될 수 있다. 즉, 한옥에서 자생적으로 변형된 과정이 생략된 채 특정시기에 고딕지향형 성당으로 신축되어 형태적 및 의미적 연속성이 사라져버렸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

표 2. 한옥성당→양식성당의 신축 개요

성당명	평면(한옥→양식)	형태(한옥→양식)
옛공세리성당 (1899, 1901)		
계산동성당 (1897, 1921)		
장호원성당 (1903, 1930)		

식성당과 한옥성당이 독자적인 발생과정을 지니고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2) 한옥성당에서 절충식성당으로 변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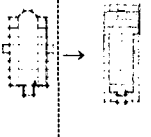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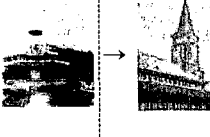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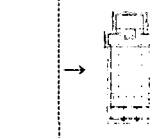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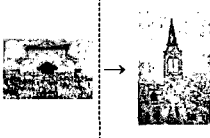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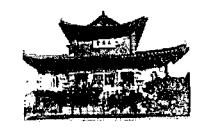

초창기 한옥식 성당에서 절충형으로 변형된 성당으로는 전북 화산 성당(1906초창, 1916개축), 안성 구포동 성당(1922초창, 1955개축) 등이 있고 황해도 은율 성당(1918), 신의주 성당(1926), 서포 성당(1931), 진남포 성당(1933), 평남 마산 성당(1934), 강서 성당(1937) 등은 초창부터 절충형으로 지어진 성당이다. 이 중 화산 성당과 구포동 성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있는 것이다.(표 3.) 개항 초기 서양식에 자극 받아 전통식에서 변화를 보여준 구한말 일부 관영건물에서와 같이 자생적 건축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식에서 양식을 지향하는 절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시 절충형 성당이 지어지게 된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여건과 토착화의 추구, 벽돌의 대량생산, 상가건물들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기능적인 요구에 있어서도 성당이 종교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당시 벽돌조적조와 종탑 등이 이미 성당의 지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이 한옥성당의 변화를 추동했다.<sup>11)</sup> 절충형 성당에서의 한옥요소 역시 간략화, 장식화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결국, 한·양 절충식 성당에서의 변화특성은 근대초 성당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료로 볼 수 있다.

9) Ibid. p.29.

10) 김정신, "성공회 한옥성당건축에 대한 실측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2호, pp.76-78.

11) 김정신, 「한국 가톨릭성당 건축사」, Op. Cit., p.61.

표 3. 절충식성당의 변화 개요

성당명	특징	평면	형태
화산성당 (1906, 1916)	건축물의 변화과정 을 보존 하고 있 음		
안성구포 동성당(1 922, 1955)	초기 바 실리카식 교회와 유사함		
황해은을 성당(191 8)	절충식, 한옥양식 이 더 강 함		
신의주성 당(1926)	절충식, 한옥양식 이 더 강 함		
서포성당 교구건물 (1931)	절충식 한옥+양 식		

2-2 기존 연구의 고찰

(1) 양식건축에 대한 연구경향

양식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의 큰 틀은 대략 양식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시기적인 연속선상에서 주로 건축의 실증적 자료와 형식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2)</sup>

이들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은 개항기 서구식 건축이 국내의 건축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과 그것이 건축 주체의 측면에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근대건축의 형성에 중요한 연결 고리로 작용했다는 논지가 공통적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이며 한국 성당건축에 비추어 파악해보면, 서구식 성당건축이 한국에 유입될 때 서구의 건축형식을 모방하여 건축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양식건축을 통해 한국건축과의 절충적 또는 토착화된 변화과정을 겪었다는 점을 분리해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구한말에 이미 전통건축에서

서양식으로서의 절충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전통양식상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더욱이 성당건축의 경우는 양식상의 유입과 변형과정이 비교적 확실하게 나타나며, 자율적인 발전과정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적 측면과 자율적 변형의 측면을 파악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건축물의 형태 또는 형식적인 면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현재 양식건축의 형태적 연구에 대해서는 긍정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비판의 대부분은 양식건축의 형태적 분석만이 갖는 단선적이고 단편적이며 현상적인 측면의 도출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비판은 사실 형태 분석이 문자 그대로 표층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지적으로 보인다. 표층적 차원에 대신하는 “원리적”, “심층적”, “구조적” 사실이라 함은 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질적”이라 함은 미적 대상물이 정체되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sup>15)</sup>

(2)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초기 성당건축의 특징을 논하면서 한 연구자는 한국성당건축의 변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항기 때와 같이) 새로운 건축유형이 요구되면 우선 과거의 유형을 이용하거나 전용한다. 그러나 과거의 산물로서는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형적인 건축유형의 산출과정을 뛰어넘어 ‘빌려온’ 건축형식에 의해 충족하고, 서서히 ‘변형’의 과정을 통해서 자체의 특성과 형태구조를 지니게 된다. . . 이 과정을 거칠 경우 짧은 기간이지만 형태의 내적 구조와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어 한국 성당 건축의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화의 특성을 체계화하면, 형태분석의 질적인 측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모방”과 “변형”의 변화과정을 통해 얻게 될 “자체의 형태구조” 또는 “형태의 내적 구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의미”

12)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32-40, p.124.

13) Ibid.;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pp.290-296

14) 정태용, Op. Cit., p.124.

15) Ibid. pp.116-117.

16)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Op. Cit., p.61(팔호는 연구자에 의해). 이와 유사한 지적으로는 정태용, Op. Cit., p.52를 참조할 것.

미”는 표층적 분석이 아닌 심층적이고 질적인 형태 분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의 형식화는 한국성당건축의 변화의 특성을 파악할 때 매우 훌륭한 모델이 된다. 이 과정을 보다 정교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구한말 천주교가 공인되고 집회를 위한 “새로운 건축 유형”이 요구되었을 때 가장 손쉬운 것은 과거의 유형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한옥을 개량하여 당장의 건축적 요구에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므로 전통 한옥이 성당건축물로 사용되었다. 이때 한옥 성당이 대량으로 건축되었으며 양식 성당의 영향으로 한옥성당의 유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한계가 노출되고 새로운 요구가 생기게되자, 전형적인 성당의 유형이 발전하기도 전에 “빌려온” 건축 형식, 즉 양식건축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양식성당건축의 유형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서서히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이들 성당건축유형의 자체 특성과 형태 구조가 확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절충식 성당건축의 “형태의 내적 구조”와 “의미”가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이 한국성당건축의 원형으로 확립될 가능성을 갖는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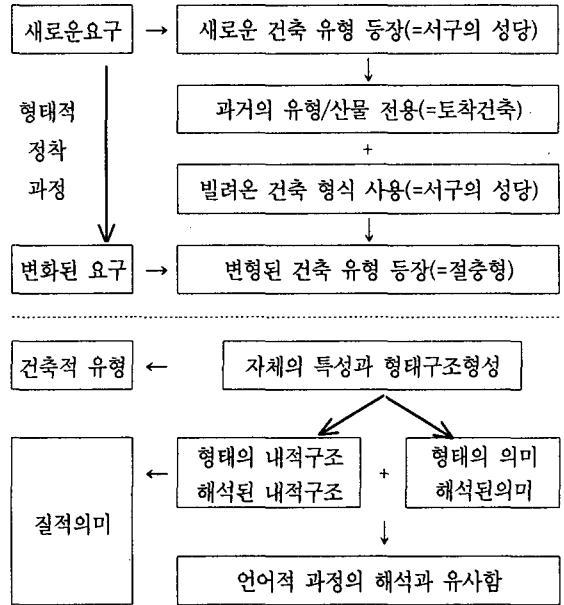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서히 변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당건축유형의 자체 특성과 형태 구조의 확립”이라는 대목이다. 한옥성당의 유형과 양식성당의 유형이 확립된 것은 모델의 과정상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유형의 변화과정의 특성과 그 결과 나타난 자체의 한국성당의 특성 및 형태구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하는 것이 사실상 규명되어야 할 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토착화 과정의 모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성당건축의 기호학적 분석의 가능성

#### 3-1 언어로서의 건축체계

사실 위에서 언급한 건축유형의 토착화 과정은 현대의 건축 이론가 Juan Pablo Bonta가 제시한 언어로서의 건축표현체계의 연구의 틀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저작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형태 및 의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

표 4. 일반적 건축유형의 정착과정



의 연구는 어떤 미적 대상의 “물리적 변화(퇴보 또는 진보)”가 “문화의 진보(시간적 또는 질적)”에 따른 “비 물리적 요소(상징, 표현, 의례, 관습 등)”들에 의해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문화적 사실과 물리적 사실을 별개의 범주로 분리해서 다룰 것을 제시한 것이다.<sup>17)</sup> 이러한 논의를 건축에 적용하기 위해 그는 어떤 미적 대상물, 즉 “건축물이 처음에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사용되었다면 처음에 사용되었을 때 중요했던 것은 그 건축물의 존재였지 그 의미가 아니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지역문화의 질적 상태(진보 또는 퇴보)가 변하면서, 상징적, 표현적, 의례적, 관습적 사항들이 그 건축물의 실질적 용도를 제도화하고 결국은 퇴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관찰자들은 “건축물을 단순히 구체적인 사물로서가 아니라 ‘자율신호’의 한 체계로서, 즉 외부적이며 객관적인 것과는 큰 관련없는 ‘신호(signal)’로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sup>18)</sup>

이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자 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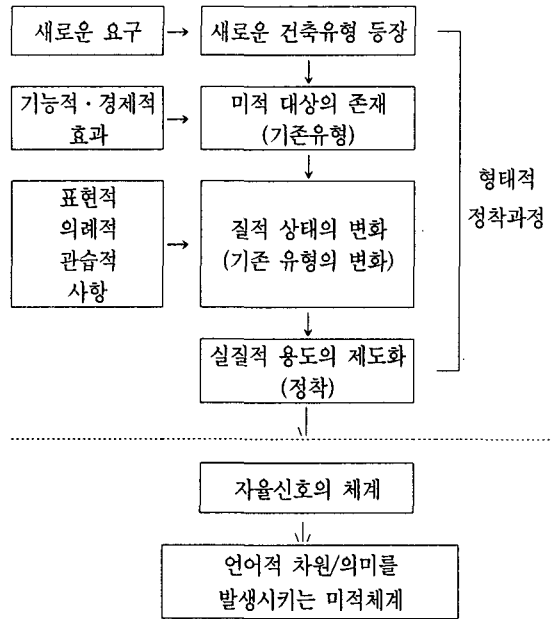
17)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27, p.29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의 건축형태가 서로 다른 건축 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동일한 형태언어라도 서로 다른 문화 체계 내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8) Ibid. p.32

로, 첫째 미적 대상물은 반드시 그것이 존재하는 문화적 공간내에서 시간적(=물리적) 또는 질적(=비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며,<sup>19)</sup> 둘째 물리적 변화 또는 질적 상태의 변화를 통해 미적 대상물은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서가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자율적 신호체계”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자율신호체계는 언어적 특성으로 인지되며 상호 소통되는 의미체계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상징적/표현적/의례적/관습적 사항들이다.<sup>20)</sup>

J. Bonta가 제시한 미적 대상물의 변화과정을 좀 더 명료하게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언급한,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새로운 건축 유형이 유입된 후 기존의 형식을 사용하는 이유 또는 배경을 말하며, “그 미적 대상의 존재”는 유입된 용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존의 형식을 말하고, “지역 문화의 질적 상태”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한 문화적 정도, 차원, 수준을 말한다. 또한 “실질적 용도의 제도화”는 새로움을 형식성과 일상적인 관습적 차원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며, “상징적, 표현적, 의례적, 관습적 사항들”은 새로운 형식을 관습적 상태로 강제하는 문화적 요인들이고, “퇴화”는 변화의 최종단계이다. 또한 “하나의 사물”이란 의사소통하지 않는 무기체를, “자율신호의 한 체계”란 건축의 언어적 차원으로 의미를 발생시키는 미적 체계를 말한다.(표 5.) 이러한 변화 과정의 형식화는 19세기 말 서양의 천주교가 인정되면서 국내에 성당이라는 건축유형이 유입되어 건축된 후 그 건물들이 겪은 과정을 이론화 및 형식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유사성은 한국 초기 성당건축의 변화를 언어적 분석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국에 서양의 급격한 건축형태가 유입되거나 타율적으로 건축되었을 때 당시의 실제적인 건축적 문제들은 기능적

표 5. 언어로서의 건축체계 정착과정



이거나 기술적인 차원도 강했지만 미학적이거나 어의론적이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당시에 이입된 건축이 추구한 목표는 사실수준을 넘어서 의미수준에 있었음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sup>21)</sup>

이를 통해 볼 때, J. Bonta의 이론은 동일한 대지의 위의 동일한 건축대상물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유효한 이론적 근거 또는 해석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한국에 지어진 가톨릭 한옥성당과 같이 동일한 건축물이 신축 또는 개축되었을 경우의 의미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해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3-2 기호학적 형태분석의 가능성

관찰자들이 미적 대상물을 단순한 하나의 사물로서가 아니라 자율 신호의 한 체계로서, 즉 인식 가능한 신호(signal)로서 파악한다고 했을 때 의미는 언어적 차원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언어학적 접근은 기호학적 분석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일찍이 Charles Jencks의 건축의 언어와 의미론 그리고 Umberto Eco의 기호학이론에서 제시된 바 있다. 쟁크스는 건축물의 의미 파악을 은유-단어-구문-문장의 단계로 제시하는데 이는 건물의 의미를 언어학적 차원에서 분석할

19) Ibid. p.40. “건축과 예술에 있어 표현체계의 변화상태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한다. 건축과 예술의 표현체계는 연속적인 변화상태에 있다. ... 형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점차 세련될 수도 있다. 아니면 더욱 악화된다. 의미 역시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데 그것이 중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20) Ibid. p.40-41. “(하나의 건축) 형태가 확립되어 공동사회와 친숙해지면, 그 형태가 사라지기 전에 미묘한 경제 원리의 결과 보조적이거나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재의미화(re-semanticized)’되어 몇 번 반복된다. 의미의 변화는 형태의 소멸보다 훨씬 더 빈번하다.”(괄호는 연구자에 의함)

21)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Op. Cit., p.61.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sup>22)</sup> 다만 그의 분석은 건축물의 형태변화 및 그 결과 야기된 의미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U. Eco는 건축물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한 후<sup>23)</sup> 건축 기호의 의미론적 분석을 위해 건축 요소 중 하나인 기둥을 집중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둥이라는 건축단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분석의 내용은 건축요소로서의 기둥이 아니라 기둥이라는 단어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어서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 그리고 그 후의 의미 변화에 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sup>24)</sup>

반면 J. Bonta의 경우 미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의미 변화를 디자인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5)</sup> 그는 미적 대상물이 사람들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관찰자가 해석자가 되며 디자이너인 발신자가 의도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의미형성의 과정을 미적 대상물에 반영된 의도성 여부에 따라 지표(index)-의도성 지표(intentional index)-의사성 신호(pseudo signal)-신호(signal)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sup>26)</sup>(표 6.) 이 과정은 물리적 대상의 변화에 따라 의미도 변화하며 진행상 지표에서 신호로 안정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표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지시물(인디케이터)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사람에게 해석될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 선입관과 같은 질적인 속성이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신호는 커뮤니케이션을

표 6. 인디케이터의 분류

Communication	Indication
신호 (Signal)	의도성 지표 (Intentional Index)
의사성 신호 (Pseudo-Signal)	지표 (Index)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며 해석자에 의해 직접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상태를 전해주는데, 그 의미는 문화산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지위를 차지한다. 여기서 신호와 지표 모두 문화적 영역에 속한다. 의도적 지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지시물이며, 의사성 신호는 발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지시물을 말한다.<sup>27)</sup> 여기서 지표가 사회화과정을 통해 신호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숙된 과정이지만 그것이 진보만이 아니라 퇴보도 의미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sup>28)</sup>

위에서 다룬 4가지 인디케이터는 하나의 체계 내에서 작용하는데, 그 모든 체계는 하나의 표현 체계를 이룬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표와 신호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형식화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Anatol Rapoport는 이러한 지시물들이 하나의 체계를 설명함에 있어 적합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 체계의 상태에 대해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주어지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일관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변수들이 선택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변화로부터 어떤 이론적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할 것을 제시했다.<sup>29)</sup>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의 표현체계를 설명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J. Bonta는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

22)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The Fourth Edition, 1984, pp.39-79.

23) Umberto Eco, "Function and Sign: The Semiotics of Architecture",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The Pitman Press: Bath, 1979, pp.11-70.

24) Umberto Eco, "A Semantic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Sign /Column/",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The Pitman Press: Bath, 1979, pp.213-232;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p.293-294.

25) Juan Pablo Bonta, "Notes for a Theory of Meaning in Design",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The Pitman Press: Bath, 1979, p.288.

26)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39; Juan Pablo Bonta, "Notes for a Theory of Meaning in Design", in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 Op. Cit., pp.276-282.

27)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p.35-39; Juan Pablo Bonta, "Notes for a Theory of Meaning in Design", in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 Op. Cit., pp.279-280.

28)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42, pp.62-63. "지표가 사회화될 때 신호가 되는데 지표의 형태는 점점 계획적이 되고 단순화되며 그리고 왜곡되어진다. 형식적 모방과 속물근성이 그 원인이다. ... 이러한 신호가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진부해지면 그 다음에 재의미화 된다."

29) Anatol Rapoport, "A System-theoretic view of content analysis", in Gerbner et al.,(eds), 1969;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40에서 재인용.



표 7. 건축적 Type의 (형태) 변화와 의미해석 과정

형태변화의 상태 (Step form)	역할 (role)	의미 (meaning)	구성요소 (component)	해설 (comment)	진행 (process)
1. 형태의 도입단계	지표 (indicator)	건축형태 1	지시적(indicative)	사물 그대로 인식함.	↓ 관 습 화  ↓ 의 미 의 변 화  ↓ 안 정 화
2. Type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표현적 체계	의도적 지표/신호 (intentional indicator/signal)	건축형태 1	표현적(expressive)	사실화된 것으로 인식함. 조작이 가해짐.	
3. 전형적인 Type의 형성	신호 (signal)	건축형태 1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의식적인 인식.	
4. 기존 Type에 다른 Type을 도입	신호 (signal)	건축형태 2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은유적 의미/코드의 복잡화(세련화)	
5. 기존 Type에 다른 Type의 도입	지표 (indicator)	건축형태 2	지시적(indicative)	은유적 의미의 사실화 복잡적 code의 사실화	
6. 그 Type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 표현 체계	의도적 지표/신호 (intentional indicator/signal)	건축형태 2	표현적(expressive)	사실화된 것으로 인식함. 조작이 가해짐.	
7. 전형적인 Type의 형성	신호 (signal)	건축형태 2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의식적인 인식	

표 8. 의미형태와 의미의 상관체계

사물 (건축물)	의미형태 (form)	특성 (features)	의미 (meaning)	가치 (value)
	의미형태 1	특성 1	지표/의도적지표/신호	가치 A
	의미형태 2	특성 2	지표/의도적지표/신호	가치 B
	의미형태 3	특성 3	지표/의도적지표/신호	가치 C
	의미형태 4	특성 4	지표/의도적지표/신호	가치 D
	의미형태 5	특성 5	지표/의도적지표/신호	가치 E
	의미형태 n	특성 n	지표/의도적지표/신호	가치 n

여 건축과 예술에 있어서 표현체계의 변화 상태에 대해 주목하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이론적 의미를 만들 수 있음을 확신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의 건축 형태가 서로 다른 건축 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의미도 서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동일한 형태 언어라도 서로 다른 문화 체계 내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sup>30)</sup>

동일한 형태 언어가 다른 문화 체계 내에 이식될 경우 받아들이는 측에 의해 다른 태도로 접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의 태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 3-3 건축의 표현체계

J. Bonta는 건축가들이 하나의 신호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건축언어를 가질 때 다음의 세 가지 전략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존의 건축언어를 지표로서가 아니라 사회화된 신호로서 사용하는 것과 둘째, 지역의 기존 건축언어를 채택하는 것 그리고 셋째, 매너리스트적인 분해의 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sup>31)</sup> 이를 한국근대초기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첫 번째 전략은 새로운 유형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서양의 건축언어를 사용할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한

30) Juan Pablo Bonta, 徐修錫 譯, Op. Cit., p.62.

31) Ibid. p.63

국의 기존 건축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다지 나타난 바 없지만 급격한 절충적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역시 한국근대초기 성당건축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둘째는 모두 건축의 사회화 과정에서 건축형식과 재료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재료의 사용과 변화 그리고 형태의 형식적인 모방과 그 변화가 가장 큰 특징으로 다루어진다.<sup>32)</sup> 그러나 세 번째의 경우는 건축언어의 파괴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과정상 하나의 신호체계가 확립되자마자 그 의미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어 건축적 언어의 상실을 가져오는 특징이 있다.<sup>33)</sup> 세 번째를 포함한 두 가지 방식 모두 미적 대상물의 의미 변화를 수반한다. 이들은 모두 대상 그 자체의 변화를 포함하며 의미 역시 변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의 신호체계가 확립되자마자 그 의미에 있어 일련의 변화가 시작되며 그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서 형태가 살아남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표현체계로 진보할 수 있다”<sup>34)</sup>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어떤 방법상으로도 건축물의 표현체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J. Bonta는 건축물의 표현체계는 하나의 형태체계와 하나의 의미체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상호 연관된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한다.<sup>35)</sup> 그는 형태를 물질적 형태와 의미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물질적 형태가 시각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특징이라면 의미 형태는 물질적 형태에서 의미를 암시하는 특성들만을 받아들인 물질적 형태의 추상적 특성으로 정의한다. 의미형태는 그 의미를 연상시키는 한 사물의 물질적 형태의 일련의 특성들(예를들어, 탑, 십자가, 기둥과 같은 요소적 특성)로 구성되며, 의미는 이 형태에서 이루어진 변화들에 의해 쉽게 변형 또는 조정될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예를들어, 상징적, 기능적, 시각적, 경제적 특성들)로 구성된다. 즉, 의미형태는 그 변화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 특성들에 의해 구성되며 의미는 형태특성들이 변

화됨에 따라 변하는 가치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의미형태는 추상화된 물질적 형태의 특징들에 따라 하나의 물질적 형태에 대응하는데 각각의 의미형태는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의미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적 형태는 의미형태를 실현하며 의미형태는 구체적인 물질형태를 조직화 또는 분석화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형태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갖되 상호 연결된 체계내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sup>36)</sup>

이때 의미의 구성요소들은 지시적, 표현적, 의사소통적 가치들로 분류되거나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J. Bonta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형태와 의미는 그 특성상 몇 가지의 모델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축의 경우 상징적 모델, 기능적 모델, 시각적 모델, 경제적 모델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힌다.<sup>37)</sup> 이들 모델

의 분류와 특성들은 의미형태의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측면들로서 구체적인 사항들의 범주라기 보다는 의미와 관련된 추상화된 특성들의 범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태의 변화에 따른 의미의 변화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각각의 모델을 통해 변화된 의미들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4. 절충형 한옥성당의 표현체계와 건축적 특성의 분석

##### 4-1 분석의 틀과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 Bonta의 이론은 동일한 하나의 형태가 변형의 과정을 겪고 그것이 의미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때의 설명 또는 해석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 Bonta가 제시한 의미의 안정화와 변화의 과정을 참조하여 4가지 인디케이터의 변화를 다음(표 7, 표 8, 표 9)와 같이 건축적 표현체계(형태특성)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의미(의미가치)를 중심으로 형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건축유형이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안에서 약간은 다른 형태언어로 사용된 후 그 의

32) Ibid. p.68

33) Ibid. p.70

34) Ibid.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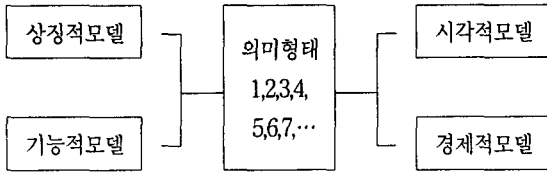
35) Ibid. p.159

36) Juan Pablo Bonta, “Notes for a Theory of Meaning in Design”, in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 Op. Cit., pp.283-288.

37) Ibid. p.284.

미가 성숙됨으로서 새로운 의미 가치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9. 의미형태의 모델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옥성당의 형태 및 의미변화의 전형을 (표 10, 표 11)과 같이 형태변화와 의미화 과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절충형 성당은 변화의 과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반면 양식 성당으로의 변화과정은 매우 단속적이고 형태와 의미변화의 차원에서 연속성이 없는 개별화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전북 화산 성당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변화과정상 대표성이 있는 예이며 변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4-2 사례분석: 강경 화산성당

강경 화산성당은 한국 한옥성당건축의 전형적인 모습과 변형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서는 변형 전의 모습과 변형 후의 모습을 분리하여 파악한 후 표현체계의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변형전 화산성당의 특징

1) 개요

변형전 화산성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에 의하면, 1907년에 완공된 화산성당의 모습은 매우 전형적인 한옥식 성당의 형식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사진 1.)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산성당은 남, 북 방향의 종축선 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측이 입구, 북측이 내진(內陣)으로 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정면 5칸, 측면 13칸의 라틴

표 10. 절충형 성당건축으로의 변화와 의미화 과정1

형태변화의 상태	역할 (role)	의미 (meaning)	구성요소 (component)	해설 (comment)	진행 (process)
1. 한옥성당의 도입단계	지표 (indicator)	한옥성당	지시적(indicative)	한옥으로 인식 (성당)	전통건축의 특성을 유지 전통건축인상 유지
2. 한옥성당(Type)을 알리려는 의도적, 표현적 체계	의도적지표 (intentional indicator)	한옥성당	표현적(expressive)	형태조작을 통해 한옥성당을 인식	
3. 전형적 한옥성당의 체계	신호 (signal)	한옥성당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한옥성당의 의식적 인식	
4. 한옥성당+서양식(형태구조) 유형(Type)도입	신호 (signal)	한옥+서양식성당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① 서양식 성당의 은유적 암시 ② 서양식 성당의 코드적 세련화	전통건축과는 매우 다른 양식의 출현
5. 한옥성당+서양식(형태구조) 유형(Type)도입	지표 (indicator)	절충식 성당	지시적(indicative)	① 서양식 성당의 은유적 암시의 사실화 ② 세련된 코드적 사실화	
6. 절충식 성당을 위한 의도적 표현체계	의도적지표 (intentional indicator)	절충식 성당	표현적(expressive)	형태조작으로 인해 절충성당으로 인식	
7. 전형적 절충형 성당의 체계	신호 (signal)	절충식 성당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절충형 서당의 의식적 인식	

표 11. 양식 성당건축으로의 변화와 의미화 과정2

형태변화의 상태	역할 (role)	의미 (meaning)	구성요소 (component)	해설 (comment)	진행 (process)
1. 한옥성당의 도입단계	지표 (indicator)	한옥성당	지시적(indicative)	한옥성당으로 인식	
2. 한옥성당(Type)을 알려주는 의도적, 표현적 체계	의도적지표 (intentional indicator)	한옥성당	표현적(expressive)	형태조작을 통해 한옥성당을 인식	
3. 전형적 한옥성당의 체계	신호 (signal)	한옥성당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한옥성당의 의식적 인식	
4. 한옥성당+서양식(형태구조) 유형(Type)도입	신호 (signal)	한옥+서양식성당	지시적(indicative)	① 서양식 성당의 직접적 표현 ② 서양식 성당의 사실화 재현	형태적 단절 의미적 불연속
5. 서양식 유형(Type)으로 대체	지표 (indicator)	서양식 성당 (고딕+ $\alpha$ )	지시적(indicative)	서양식 성당의 사실화	
6. 서양식 성당을 위한 의도적 표현체계	의도적지표 (intentional indicator)	서양식 성당	표현적(expressive)	형태조작의 결과 서양식성당으로 인식	서양건축양식 으로의 변화(쇠퇴)
7. 전형적인 서양식 Type의 형성	신호 (signal)	서양식 성당 (고딕+ $\alpha$ )	의사 소통적 (communicative)	서양식 서당의 의식적 인식	

십자형 바실리카식 장방형으로서 그 구성은 남측 입구를 지나 본랑(本廊)인 회중석, 영광의 문 아치가 있는 제대(祭臺)부분의 트란셉트(transept), 내진인 앱스(apse)부분으로 구성된다. 측랑(側廊)에 해당하는 부분은 열주가 외부로 노출되고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우 퇴칸 중 입구에서부터 북측으로 8칸은 뒷마루, 정면 퇴칸도 뒷마루로 되어있다. 뒷 퇴칸은 제의실로 사용되었으며 내진(內陣)인 좌우 3칸은 익랑으로 되어있었다.

전체적인 입면형태는 한옥의 전통적인 입면의 특성을 유지한 채 기단, 몸통부, 지붕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 위에 한옥식 회랑 기둥과 뒷마루의 결합으로 전통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옥의 중층 지붕은 실내에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측창을 설치한 클리어스토리(clerestory)가 형성되어 있다. 정면의 중층 지붕 합각부에는 목조의 종탑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입면의 구성은 한옥의 전통적인 기단부+기둥부+지붕부로 구성되며 지붕부:몸통부가 1:1의 비례를 보여 전통적인 목조 한옥의 입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당으로서의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목조탑과 광창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바실리카 형식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내부공간은 입구에서부터 내진에 이르는 축을 강조한 중축성이 두드러지며, 가운데 설치된 기둥은 구조적 보강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회중석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기둥에 표현된 절충



사진 1. 화산성당 (변경 전)

38)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3, p.146;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Op. Cit., p.36; 화산성당(나바위 성당) 설립 백주년 기념엽서.

표 12. 한옥식 화산성당의 형태 및 의미체계

의미형태(form)	특성(features)	의미(meaning)	가치(values)	
· 의미형태 1	목조 종탑	의도적 지표	교회의 형식성	시각적 의미 상징적 의미
· 의미형태 2	십자가	의도적 지표	교회의 형식성	시각적 의미 상징적 의미
· 의미형태 3	측창(clerestory)	의도적 지표	교회의 기능성 빛의 도입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4	중층 지붕	의도적 지표	교회의 형식성 입면성의 강조	기능적 의미 시각적 의미
· 의미형태 5	내부 기둥	의도적 지표	공간분절 교회기능의 형식성 구조적 안전성 강조	상징적 의미 시각적 의미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6	평면 구성 (영광의 문, 제대, 내진) 중축성 강조	의도적 지표	교회의 내부 형식성 내부기능성 강조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7	측면의 출입구	의도적 지표	교회의 형식성 기능적 특성 강조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8	목조 심벽구조	의도적 지표	구조적 특성	기능적 의미

식의 장식은 주두로서의 형식성을 강조한 것이며 내부공간에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수평의 목조천장으로 인해 공간의 수렴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보인다.

2) 표현체계분석

(표 10.)에 근거하여 화산성당의 의도적 또는 표현적 체계를 파악하면 다음 (표 1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한옥에 반영된 새로운 건축요소는 성당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된 형태요소, 즉 성당이라는 의미를 연상시키는 물질적 형태의 일련의 특성들로 구성되며, 그 형태의 변화가 성당이라는 건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지닌다. 그 의미는 형태의 변화들에 의해 쉽게 변형 또는 조정될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화산성당의 변형 전의 모습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미형태로는 성당이라는 기능을 추상적으로 표현코자 했던 요소인 목조 종탑, 십자가, 측창(clerestory), 중층 지붕, 내부 기둥, 평면 구성, 측면의 출입구, 목조 심벽(心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형태요소(form)는 한옥 성당이라는 형태의 일련의 특성(features)들이며 그 의미는 대개 의도성과 표현적 특성을 보이는 의도적 지표(intentional index)로 되어 있다. 이 의미들은 형태의 변형에 의해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values)로서 표에서와 같

이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대응된다.

예를 들어, 목조 종탑(의미 형태 1)은 한옥의 교회의 형식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에 대해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시각적 의미와 성당의 상징적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내부 기둥(의미 형태 5)은 구조적 또는 공간의 분할이라는 기능적 의미, 목조 주두에 장식된 문양의 시각적 의미, 기둥 오더를 은유적으로 상징하여 성당의 내부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다양한 의미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목조 심벽(의미 형태 8)은 성당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능적 의미가 유일하다. 이상의 의미 형태와 의미 가치를 건축물에 반영된 추상적 모델로 범주화해보면 (표 13.)과 같이 상징적 모델(의미형태 1, 2, 5), 시각적 모델(의미형태 1, 2, 4, 5), 기능적 모델(의미형태 3, 4, 5, 6, 7, 8), 경제적 모델(의미형태 3, 5)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모델은 여러 의미형태들을 포함하며 변형된 후의 의미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특성들이 된다.

표 13. 한옥식 화산성당의 의미모델

상징적모델	시각적모델	기능적모델	경제적모델
1,2,5	1,2,4,5	3,4,5,6,7,8	3,5

(2) 변형후의 화산성당의 특징

1) 개요

현존하고 있는 화산성당은 1916년 한옥성당에서 한·양 절충식으로 변형된 후의 모습이다.(사진 2.) 이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화산성당의 배치형태는 과거와 큰 변화 없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변형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정면 5칸, 측면 13칸의 라틴 십자형 바실리카식 장방형의 모습이다. 그러나 평면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는데, 정면의 퇴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종탑을 지지하는 벽돌 조적조의 벽체로 대체된 것과 좌, 우 측면 퇴칸의 뒷마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외부회랑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옥식에서 서양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면성의 강조와 형식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종탑부의 공간이 진입부에서 자연스럽게 나르텍스 공간을 형성하여 서양식 성당 입구의 형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외부 회랑으로 인해 전형적인 서양식 성당과는 다르게 처리되어 있다. 변형전과 동일하게 뒤쪽의 퇴칸은 제의실로 사용되며, 내진인 좌우의 3칸은 익랑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입면 형태는 크게 변화되는데, 전면부의 한옥 중층지붕의 모습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딕식의 종탑 및 입면으로 대체되었다. 반면 측면 및 배면은 중층의 한옥 전통 입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당의 정면성의 강조와 입면의 형식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양 측면의 뒷마루가 사라지면서 완벽한 한국식 회랑으로 변화되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론 회랑 자체가 목조의 전통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보다 완벽해졌다. 입면의 변화는 주로 정면 출입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평면상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서양식 성당의 입구에 있는 나르텍스 공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동시에 입면의 형식성을 강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입면구성은 정면부에서 한옥 중층 지붕을 바실리카식 구법으로 정립함에 따라 바실리카식 입면과 종탑의 형식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정면부와 뒤쪽 측면부의 구조적 불일치를 보여주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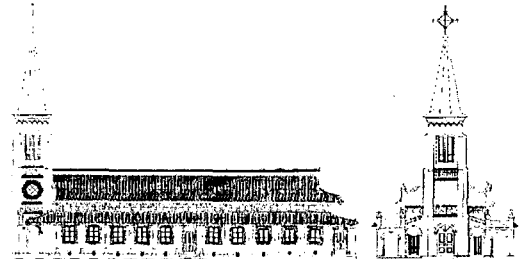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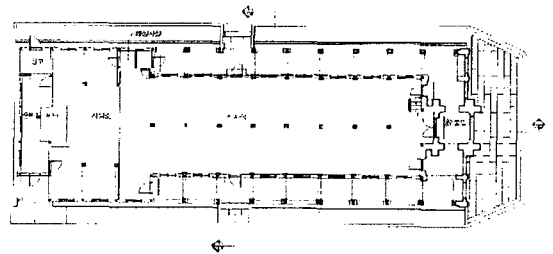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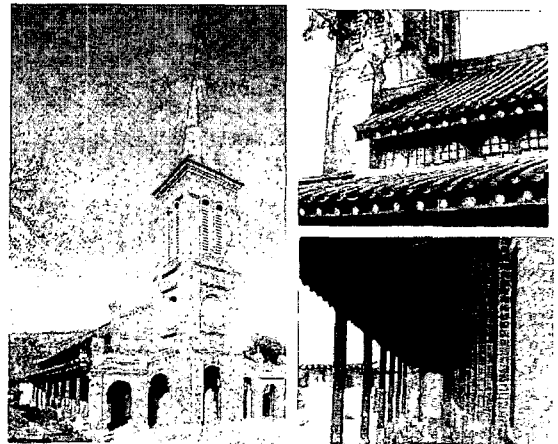


사진 2. 화산성당 (변경 후)

며, 마치 정면성의 강조라는 르네상스시대의 입면구성 기법과 상당히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된 측면부 회랑의 구성은 내부의 기능에 따라 변형된 것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형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공간은 변형되기 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출입부의 나르텍스 공간이 형성됨으로서 입구에서 내진에 이르는 종축성이 보다 강조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수평 목조천장은 이전과 같이 공간의 수렴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가운데 설치된 기둥은 이전과 동일하게 구조적 보강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회중석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역시 동일하

계 기둥에 표현된 절충식의 장식은 주두로서의 형식성을 강조한 것이며, 내부공간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2) 표현체계분석

(표 10.)에 근거하여, 변화된 화산성당의 표현체계를 분석하면 (표 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절충형 성당에 반영된 새로운 건축유형은 (표 12.)에서 정리한 대로 서양식을 지향하는 변화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성당이라는 의미를 연상시키는 물질적 형태의 일련의 요소, 즉 그 형태의 변화가 건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특성들로 구성되었다. 역시 그 의미는 형태의 변화들에 의해 쉽게 변형 또는 조정될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로 구성된다. 그 결과 화산성당의 변형 전 모습에서 추출한 의미형태였던 목조 종탑, 십자가, 측창(clerestory), 중층 지붕, 내부 기둥, 평면 구성, 측면의 출입구, 목조 심벽(心壁) 구조의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변화된 형태요소(form) 역시 절충형 성당이라는 형태의 일련의 특성(features)들이며 그 의미는 대개 의도성과 표현적 특성을 보이는 의도적 신호

(intentional signal)로 변화되어 있다. 그 의미는 앞의 분석과 같이 이전 형태의 변형에 의해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values)로서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대응된다.

예를 들어, 목조 종탑(의미 형태 1)은 그 규모와 형식이 크게 변형됨에 따라 교회의 형식성 측면에서 외부에 대해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시각적 의미의 강조와 성당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종탑의 기능적 의미가 새로 파생되고 있다. 더욱이 십자가(의미 형태 2)는 종탑 자체의 거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각적 및 상징적 의미가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특히 많이 변형된 전면 중층 지붕(의미형태 4)은 정면성의 강조로 인해 기능적 의미, 시각적 의미 이외에도 상징적 의미가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면구성(의미형태 6)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벽체(의미형태 8)는 목조 심벽구조에서 벽돌 조적조로 변화됨으로서 기능적 의미와 더불어 시각적 의미가 파생되고 있다. 이상의 의미 형태와 의미 가치를 건축물에 반영된 추상적 모델로 범주화해보면 (표 15.)과 같이 상징적 모델(의미형태 1, 2,

표 14. 절충식 화산성당의 형태 및 의미체계

의미형태(form)	특성(features)	의미(meaning)	가치(values)	
· 의미형태 1	벽돌조 종탑	의도적 신호	형식성 강조 교회의 형식성 교회의 입면성	시각적 의미 상징적 의미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2	십자가	의도적 신호	십자가의 기능성 약화 시각적 기능성 약화 상징성 약화	시각적 의미 상징적 의미
· 의미형태 3	측창	의도적 신호	교회의 기능성 빛의 도입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4	중층지붕	의도적 신호	형식성 강조 교회의 형식성 입면성의 강조	기능적 의미 시각적 의미 상징적 의미
· 의미형태 5	내부기둥	의도적 신호	공간분절 변화없음	
· 의미형태 6	평면구성	의도적 신호	교회의 내부 형식성 내부기능성 강조 형식화 강조	기능적 의미
· 의미형태 7	측면의 출입구	의도적 신호	교회의 형식성 강조 기능적 특성 강조	기능적 의미 상징적 의미
· 의미형태 8	벽돌조적조	의도적 신호	벽식구조로 변화 구조적 특성강조	기능적 의미 시각적 의미

4, 5, 7), 시각적 모델(의미형태 1, 2, 4, 5, 7, 8), 기능적 모델(의미형태 1, 3, 4, 5, 6, 7, 8), 경제적 모델(의미형태 3, 5)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은 여러 의미형태들을 포함하며 변형된 후의 의미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

표 15. 절충식 화산성당의 의미모델

상징적모델	시각적모델	기능적모델	경제적모델
1,2,4,5,7	1,2,4,5,7,8	1,3,4,5,6,7,8	3,5

(3) 표현체계 및 의미변화의 특성

표현체계 및 의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 의미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의미형태 1: 목조 종탑 → 벽돌조 종탑의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로 변화되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재료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목조에서 벽돌 조적조로의 변화는 건축의 형식을 크게 일신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절충식 성당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보면 1916년의 화산성당을 기점으로 이후 출현하는 절충형 성당은 한옥 건축의 인상을 탈피하여 전통 건축과는 거의 다른 양식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보게된다. 재료의 변화로 인해 구조적 특성이 강조되며, 정면에 형성된 종탑과 나르텍스 공간의 형태와 더불어 정면의 형식성 강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종탑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탑의 기능이 강조되어 기능적 의미가 파생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의미형태 2: 십자가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 또는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탑의 규모가 커지고 형식성이 강조됨에 따라 초기의 십자가가 지닌 기능적 의미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시각적 의미 및 상징적 의미의 약화가 이루어짐으로서 결과된 것이다. 지표에서 신호로의 의미 변화는 의미형태의 급격한 쇠퇴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형태의 시각적 안정화로 해석될 수 있다.

3) 의미형태 3: 측창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

에서 의사성 신호 또는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정면부의 강조로 고딕식 성당의 형식성이 강화됨에 따라 한옥 중층부 지붕 밑에 형성된 측창의 기능이 강화된 결과이다. 지표에서 신호로의 의미변화는 의미형태의 급격한 쇠퇴 또는 그 형태의 안정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4) 의미형태 4: 중층 지붕의 정면부→바실리카식 정면부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정면부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성당의 형식성의 강조와 시각적 특성의 강화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정면부의 형식성의 강조와 측면부의 형식성의 약화를 결과했다. 의미형태 4에서는 상징적 의미의 파생이라는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5) 의미형태 5: 내부기둥

내부기둥은 의미의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의미는 기능적, 상징적, 시각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의미형태 6: 평면구성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바실리카식 평면의 형식성 강화로 인해 결과된 것이다. 특히 뒷마루의 삭제와 출입구 나르텍스 부분의 형성은 바실리카 평면의 전형에 가까워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7) 의미형태 7: 측면의 출입구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입구 부분 정면에 형성된 뒷마루가 없어지고 나르텍스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나르텍스의 등장은 출입구의 형식성과 정면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적 의미가 파생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8) 의미형태 8: 목조 심벽 → 벽돌 조적조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역시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재료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건축물 전체의 기능적, 시각적 특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벽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각적 의미가 파생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 분석의 종합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되었다.



첫째, 의미형태와 관련하여 화산성당의 의미형태 1, 4, 6, 7, 8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각각 의미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론상, 의미의 변화는 의미형태의 변화과정에 따라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의 가치체계는 기존의 의미의 강화 또는 쇠퇴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파생으로 변화됨으로서 의미형태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따라 조정 또는 변형되고 있다. 반면, 화산성당의 의미형태 2, 3, 5의 경우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의 파생보다는 쇠퇴 또는 강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미의 가치체계와 관련하여 화산성당의 의미형태의 변화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형태적(또는 형식적)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의미형태 1, 4, 6, 7, 8)와 재료의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의미형태 1, 8)가 그것이다. 첫 번째 형태적 변화의 경우 주로 시각적, 상징적 가치에서의 변화가 수반되며, 이는 각각 기능적 측면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재료의 변화의 경우, 주로 기능적 가치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며 시각적 모델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화산 성당의 의미형태 각각은 하나의 의미(지표 또는 신호와 같은)에만 대응하나 그 의미의 가치체계는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강화 또는 약화되어 쇠퇴되기도 한다. 다만, 급격한 형태(형식)의 변화로 시각적 또는 상징적 가치가 급격히 강화되면 그로 인해 기능적 가치와 같은 새로운 의미가 파생된다. 결국 새로운 의미가치의 탄생은 건축물의 형태(형식)가 급격히 변화됨으로서 나타나는 극적인 표현체계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산성당의 의미형태는 초기에 의도성 지표에서 의사성 신호 또는 신호로 변화되었다. 이는 의미가 변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결과 각각의 의미가치는 변화된 가치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의미가치의 변화과정과 동일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넷째, 화산성당의 의미형태 2, 4에서와 같이 표현체계를 형성하는 의미형태들의 구성 중 다른 것이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배할 정도로 변화되었을 때, 지배당하는 의미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지배하는 의미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의미형태와 의미가치의 체계는 화산

성당이라는 하나의 표현 및 의미체계 내에서 작용한 결과이며 완전히 독자적인 의미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의미체계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화산성당에서 나타난 표현체계는 이러한 상호영향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표 10.)의 형태변화의 과정 2→6에서와 같이, 화산성당의 경우 표현적 구성요소의 형태적 조작으로 인해 의미형태 1, 4, 6, 7, 8에서 의미형태의 세련화 과정 및 은유적 암시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목조 종탑에서 벽돌조 종탑으로의 변화(의미형태 1)와 정면 중층지붕에서 정면 바실리카식 입면으로의 변화(의미형태 4), 평면형식의 변화(의미형태 6), 측면 출입구의 변화(의미형태 7), 심벽에서 조적조 벽으로의 변화(의미형태 8)는 모두 한옥식 성당에서 양식 성당을 지향하는 절충식의 형식성이 강조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형태 및 의미가치의 측면에서 형태의 세련화 및 세련된 코드의 현실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화산성당의 분석과 비교해서 한옥→양식 성당으로의 변화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태변화의 상태 2→6의 주요 특성이 상실되는 과정을 보이며, 은유적 암시 또는 코드적 세련화의 변형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한옥성당의 변화의 과정에서 양식 성당으로의 변화는 상호 별개의 표현체계로 인해 연결되지 않으며, 형태변화에 따른 지속적 의미가치체계의 변화 역시 단속적이어서 오히려 개별적인 대상으로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옥성당에서 양식 성당으로의 변화는 근대 초기 유입된 양식 성당 자체의 진화과정상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으로 보인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전북 화산성당을 중심으로 한옥식 성당건축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화산성당의 변화 과정은 서양식 성당을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건물자체를 특징짓는 구체적인 의미형태와 의미가치체계가 변화의 과정을 겪음으로서 서양식으로의 코드적 세련화를 이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옥식 성당의 변화가 당시 유입된 서양식에 근거한 다기 보다는 기존 한국건축유형에 근거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화산성당의 변화의 전형적인 양상은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에 근거한 한옥성당의 존재 자체가 사회화 과정, 즉 서양식의 영향하에 지역문화의 질적 상태의 변화요인이 반영됨으로서 의미형태의 형식화 그리고 재료의 변화가 수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기호학적으로는 양식적 모방을 통한 의미의 강화 또는 쇠퇴의 특성을 통해 지표적 성격에서 신호적 성격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산성당은 당시 국내 성당건축의 독특한 건축언어, 즉 하나의 독자적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이후 실질적 용도의 제도화 또는 신호적 특성의 반복 사용으로 점차 서양식 성당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 결과 화산 성당의 절충적 모습은 1920년-30년대에 건축된 절충식 성당과 같이 전통 한옥식 성당과는 거의 다른 양상을 보여주며 당시 유입된 양식 성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독자적인 변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화산성당의 변화 특성은 한국건축주체에 의한 자율적인 변화의 모습이며 독자적인 형태구조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도적 특성, 즉 기호학적으로 말해 지표에서 신호적 특성을 지향한 변화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해석 될 수 있다.

(4)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화산성당 변화과정의 기호학적 분석과 이론화 과정의 시도는 근대초기 유입된 양식 건축의 영향 하에서 전통양식이 변형되는 과정의 특성과 변화의 양태 및 그것의 건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있다.

(5) 다만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론화 특성은 건축의 의미가 의미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동일 건축물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분석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 참고문헌

1.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9

2.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3. 김정신, "성공회 한옥성당 건축에 대한 실측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2호, pp.63-78
4. 김성우, "한옥교회건축형식의 성격과 전개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9호, pp.177-184
5.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6. 김승배, "한국·중국·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 건축 수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7. 徐修錫 譯, 「건축의 표현체계」, 기문당, 1994.
8.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변화",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2
9.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0.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사진실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3,
11.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기문당, 1994
12. Juan Pablo Bonta, "Notes for a Theory of Meaning in Design",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R. Bunt, The Pitman Press: Bath, 4th edition. pp.275-309
13. Juan Pablo Bonta,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s: a study of expressive systems i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79
14. Umberto Eco, "Function and Sign: The Semiotics of Architecture",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The Pitman Press: Bath, 1979,
15. Umberto Eco, "A Semantic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Sign /Column/", in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edited by G. Broadbent, C Jencks, The Pitman Press: Bath, 1979
16.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ewyork: Rizzoli, The Fourth Edition, 1984

# A study on the Transformed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al System of Korean Traditional Church Architecture

Jin, Kyung Don

(Assistant Professor, Paekche Art College)

## ABSTRACT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the transformed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al system of Church architecture in Korean traditional style. Through the analysis of transformed forms and its meanings of th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nique process of stylistic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church architecture in early modern, 1900'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nalyse of them after the actual field surveys of Korean traditional churches, specially eclecticism churches as the HWSAN church and KUPODONG church, and the analysis of Semiology Theory for Semantic Interpretation of artistic objects as an objects of art and architecture. Specially, the survey concentrates on the architectural elements(the form, the architectural structure, the material, the roof shape, the window, the door, the bell tower, the plan, etc) of eclecticism churches, especially those of HWASAN church and the analysis of semiology theory contains the research results which were studied by theorists as Charles Jencks, Umberto Eco and Juan Pablo Bonta.

Accoding to analysis, Korean eclecticism churches have the unique transformation process and specific meaning of the spontaneous process of development. In the results of the semiological analysis of HWASAN church, it can be revealed clearly that transformed process of formal characteristics of HWASAN church intended to formal originality of western Gothic church, but its form and meaning were based not on any simply imported western style but on existing system of Korean architecture.